

중국 경제 전망과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

1. 최근 중국 경제 동향과 전망

□ 1997년 하반기 이후 경기둔화 본격화

- 1997년 중반 동남아 통화·금융위기 이후 중국 경제성장폭이 크게 둔화되면서 1989년 천안문사태 발생 이후 8년만에 가장 저조한 실적 기록

□ 이는 성장의 양대축인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크게 감소한 데 기인

- 1997년 7월 이후 아시아 주요 경쟁국의 통화·금융위기로 이들의 통화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그동안 우위를 보였던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점차 약화 (수출증가율 : '97년 상반기 26.3% → '97년 하반기 17.1% → '98년 상반기 7.6%)
- 1997년중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는 510.4억 달러(계약기준)를 기록, 전년대비 30.4% 감소하였고, 1998년 상반기에도 20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.3% 감소
- 이와 같이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저조한 이유는 주요 경제협력 대상국이었던 우리나라, 홍콩 및 일본과의 경제교류가 크게 줄었기 때문

< 경제성장률 및 교역·투자 동향 >

(단위 : 억 달러, %)

	1996년	1997년	1998년 상반기
경제성장률	9.7	8.8	7.0
무역규모	2,899(3.2)	3,251(12.1)	1,514(5.2)
수출	1,511(1.5)	1,827(20.9)	870(7.6)
수입	1,388(5.1)	1,424(2.5)	644(2.2)
무역수지	123	403	226
외국인직접투자			
계약액	733(-19.7)	518(-29.3)	242(5.5)
실행액	417(11.2)	453(8.5)	205(-1.3)
환율(元/달러,기말)	8.31	8.28	8.28

* ()안은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(%)임.

□ 올 하반기 중국 경제성장은 더욱 위축될 전망

- 주요기관의 1998년중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대개 6%~7%내외로 보고 있어 당초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8%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(EIU : 6.7%, IIF : 6.5%, 세계은행 : 7.0%)
- 이는 아시아 주요국의 경제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확산되면서 중국경제의 향후 전망도 단기간내에 예전의 고도성장세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
- 또한 양쯔강 주변지역(江蘇省, 江西省, 湖南省, 湖北省, 四川省)의 홍수발생으로 이 지역의 산업경제가 거의 마비상태인 데다가 동북부 지역의 쑹화강 범람으로 중국내 최대 석유생산기지인 다칭(大慶)유전이 물에 잠기는 등 전국적인 홍수 피해로 중국 경제의 어려움 가중 예상

2. 위엔(元)화의 평가절하 가능성

□ 중국정부는 최근의 경제불안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경기부양책 추진

- 이는 위엔화 평가절하보다는 정책의 신축성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표현으로 판단(경기부양책 추진 내용은 <부록 1>참조)

□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경기부양책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, 일본 엔화가치 급락 등 외부요건이 더욱 악화되면서 '위엔화 평가절하' 가능성이 고조

- 그동안 많은 중국 고위층은 위엔화 평가절하가 得보다는 失이 많다고 판단하여 평가절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부인
- 그러나 최근 이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방향으로 선회 (위엔화 안정의 전제조건으로 엔화가치의 안정 강조)
- 중국 경제의 침체 지속과 이로 인해 실업 증대 등 사회불안이 야기되고, 일본 엔화의 약세지속과 우리나라, ASEAN 등 주변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, 결국 중국은 '위엔화 평가절하'라는 최종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음

< 위엔화 평가절하에 영향을 주는 제반 요인 >

	억제 요인	촉발 요인
내부적 요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양호한 대외거래 지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무역수지 흑자기조 유지 · 세계 2위의 외환보유고 - 국제자본 이동의 엄격한 통제 - 홍콩경제 타격(Peg제붕괴)에 대한 우려 - 중국의 WTO가입에 부정적 효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내수부진과 디플레이션 심화 - 양쯔강 및 쑹화강의 홍수 피해 확산 - 국유기업의 부실 및 이로 인한 실업 증대 - 금융기관 부실 심화 - 암달러와 공식환율 괴리 확대
외부적 요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세계공황 초래 가능성에 대한 불안 - 중국의 대아시아 주도국 입지 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엔화가치 하락 - 주변국의 경제침체 장기화

□ 위엔화 평가절하 여부는 엔화가치의 변동 등 주변여건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기 그 시기와 규모에 대해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움. 그러나 위엔화 평가절하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 많은 중국 연구기관들은 1999년중 10% 내외의 규모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

- 이는 이미 언급한 바 있는 각종 경기부양책에 대한 성과 여부를 검증해야 하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며, 또한 이러한 순수 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이해득실을 가리는 중국 정부의 신중한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임
- EIU는 1999년중 11% 위엔화 평가절하 예상
- 그러나 일본 엔화가치 하락폭이 더욱 커져 160엔대 이상으로 급락할 경우 그 시기는 더욱 빨라지고 폭 또한 예상보다 커질 수도 있음

【全善俊】

< 부록 > 1998년 이후 중국의 주요 경기부양책 추진 현황

목표	세부 시행정책	주요 내용
수출 증대	수출기업 지원 확대	- 輸出入銀行의 수출금융 확대(총수출액의 60%) · 특히 전자·기계류 등 자본재의 해외프로젝트 금융지원에 중점 - 工商銀行의 석탄수출 기업에 4억 달러 수출금융 지원
	증치세 환급률 인상	- 방직제품: 9%→11%(‘98.1) - 석탄: 3%→9%, 철강·시멘트·선박: 9% → 11%(‘98.6) - 통신, 발전설비, 농기계등 총12개품목: 9%→11%(‘98.7)
	지방정부의 수출장려	- 廣東省 8개항목의 수출장려책 발표(‘98.6)
	수출허가증 발급 규제 완화	- 총142개 품목가운데 기초금속(알루미늄, 니켈), 폐철 등 27개 품목의 수출허가증 발급 대상 품목 철폐
외자 유치 증대	외국인투자기업 설비수입관세 면제 재 실시	-‘96년 4월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입설비 기자재에 대한 관세면제 제도를 폐지하였으나 ‘98년 1월 이를 재 실시 -면제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음 · ‘外商投資產業指導項目’의 장려항목과 제한항목 乙類 · ‘當前國家重點考慮發展的產業商品技術項目’에 부합하는 국내투자항목의 투자총액 한도내에서 수입한 자체 이용 설비 · 외국정부 및 국제금융기구가 용자하여 수입한 설비 · 가공무역시 외국 수입자가 제공한 ‘가격이 정해지지 않은’ 설비 * 다만, 이들중 ‘外商投資項目不予免稅的進口商品目錄’과 ‘國內投資項目不予免稅的進口商品目錄’상의 품목은 제외됨
	투자절차 간소화	-‘98.1월 발표된 ‘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’가운데 장려항목은 투자규모가 3,000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도 신고만으로 투자 허가 -기존 투자액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관리방식을 투자항목 중심으로 변경
	시장 개방 확대	-서비스부문의 외국인투자 전면 허가 발표 예정
	투자유치 다변화	-투자 유치지역의 다변화로 아시아의 대중국 투자 감소 상쇄
내수 진작	공공투자 확대	-향후 3년간 총 1조달러(1998년중 3,370억 달러) 투입 · 금융기관의 여신확대를 위해 재할인율(1.82%포인트) 및 지불준비율 인하(1.71%포인트) · 철도건설기금, 도로건설기금 등 각종 전문 건설기금 확충
	금리 인하	-예대금리 : 각각 평균 0.49%포인트, 1.12%포인트 인하(‘98.7) · ‘98년 3월에 이은 두 번째 인하로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 인하폭이 크며, 단기보다는 중장기 금리 인하폭을 크게 함으로써 기업의 금융부담 완화에 역점
	주택제도 개혁	-주택 취득용 용자 확대 -주택공급 규모 확대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